

공포에 대한 동년배 세대의 상이한 반응 : 2008년 촛불시위에서 20대를 이해하는 몇 가지 가설*

오 찬 호**

초 록

대한민국의 20대 동년배 세대‘내’에는 <우울한 88만원 세대>와 <활발한 Web 2.0 세대>가 공존한다. 본 연구는 이를 2008년도의 촛불시위를 축으로 확인한다. 이 동년배 세대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갈라져 있는가? 기존의 세대연구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각 세대만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에 익숙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과거의 경험’만으로 세대가 형성되는 조건을 결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이 구체적인 세대결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험에 대하여 반응하는 ‘감정’(emotion)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경험이라도 반응하는 감정에 따라 ‘후속’ 행위(행동)는 달라진다. 세대는 바로 이러한 감정‘들’이 얹혀있는 특정한 ‘집단감정’의 결과물이다. 2008년의 촛불은 특정한 집단감정이 구체적인 집단의 행위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연구자는 이를 하나의 축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들까지 설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 촛불시위, 세대, 감정, 공포, 칼 만하임, 잭 바버렛

* 이 연구는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시대진단 커뮤니티 〈Aufstand〉의 토론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또한 날카로운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도 감사드린다. 유용한 연구지적은 추후 연구로 보완할 것이다.

**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시간강사(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I. 2008년의 촛불과 세대

2008년도 ‘촛불시위¹⁾’에 대한 분석이 한창이다. 매우 스펙터클했던 65여일의 촛불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강준만, 2008; 김진석, 2008; 김철규·김선업·이철, 2008; 김호기, 2008; 2009; 김호기·고동현·김인정, 2008; 백옥인, 2008; 윤평중, 2008; 이동연, 2008; 이창호·정의철, 2008; 이해진, 2008; 전상진, 2008; 전효관, 2008; 조기숙·박혜윤, 2008; 한홍구, 2008; 허우성, 2008; 홍성태, 2008). 이들 연구들은, 우선적으로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를 전면에 내세운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출현에 주목하면서 촛불이라는 국민들의 정치적 직접행동이 갖는 함의를 파악한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이 직접행동을 ‘누가’, ‘어떻게’, ‘왜’, 혹은 ‘제대로’ 했느냐를 분석한다.

먼저 “누가 촛불을 들었는가?”에 주목해보자. 여기서 특정한 집단을 언급하기는 사실 곤란하다. 왜냐하면, 촛불이 스펙터클하다는 이유는 이것이 연령·성별·계층 등의 특정변수로 제한된 상태에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초 질문에 순차개념을 투입해 보자. “누가 촛불을 ‘먼저’ 들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그러나 동일한 대답이 제기되었다. 바로 “10대가 먼저 들었다”는 것이다(경향닷컴 촛불팀, 2008; 김철규·김선업·이철, 2008; 김호기·고동현·김인정, 2008; 이해진, 2008;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한겨레 사진부, 2008).

아울러 10대가 촛불을 ‘왜’,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김철규·김선업·이철(2008: 43-47)은 이를 ① 청소년들의 새로운 정치적 권리 주장 ② 신자유주의적 지배구조 속에서 교육제도의 억압을 경험하는 10대들의 봉기 ③ 청소년 집단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④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청소년세대로서의 의미 등으로 구별한다. 이러한 10대를 가장 멋지게 표현하는 단어가 등장했다. 바로 <Web 2.0 세대>다. 이 세대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쌍방향 소통, 참여지향성, 탈물질적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디지털 감성세대’이다(김호기 외, 2008).

그런데 10대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사실, 다른 세대와 비교된 상대적 긍정

1) 2008년도의 촛불은 촛불집회, 촛불문화제 등 사용자의 해석지평에 따라 따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촛불시위’라고 명한다. 특정한 이유는 없다.

성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Web 2.0 세대는 언제나 “다른 세대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했다”는 차원에서 칭찬을 받는다. “형님들, 토익책 덮고 촛불 좀 들어요.”(레디앙, 2008. 5. 22), “그 많던 ‘20대 광장 세대’는 어디로 갔나?”(한겨레, 2005. 5. 19) 등의 신문기사는 Web 2.0 세대를 바로 윗세대와의 차별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²⁾

10대를 칭찬하는 어른들은 “20대와는 달리”라는 말을 꼭 덧붙인다. ‘10대는 희망이 있지만 20대는 짝수가 노랗다’는 식이다. 촛불집회 이후 10대와 20대를 비교하는 담론이 부쩍 늘어나면서 점차 20대는 ‘왕따’로 표출되고 있다(박권일, 2008).

10대에 대한 ‘희망’은 ‘희망이 없는’ 20대의 무능함 덕택이다. 그런데 20대를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다. 이는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라는 한 권의 사회과학 서적 때문이다. 주저자인 우석훈은 20대가 “토익 책을 덮고 짱돌을 들길” 원했다. 이는 이 세대의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 사회구조적인 차원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88만원 세대〉에 대한 저자의 관심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현재의 20대가 무능한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라는 한탄만이 강조되는 것이 작금의 상황임은 분명하다.³⁾

여기에서 다음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Web 2.0 세대는 88만원 세대와 확연히 구별되는 독특한 세대인가? 반대로 88만원 세대에게서 Web 2.0 세대의 특징을 전혀 찾을 수 없는가?” 이 의문의 핵심은 이 두 세대를 10대, 20대라는 연령변수로 손쉽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Web 2.0 세대는 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소통을 중시 ② 모바일과 인터넷을 자신의 표현수단으로 삼는 ‘디지털 노마드’족 ③ 합리적 논리와 토론이 오고가는 ‘숙의적 공론장’(deliberative public sphere) 중심이 아닌 이미지와 상징을 매개로 한 감수성과 정서적 요인이 중시되는 ‘심미적 토론장’(aesthetic public

2) 이는 Web 2.0 세대만의 특징은 아니다. 베이비 붐 세대, 386 세대, N세대 등 일반적인 세대명칭은 단연코 타 세대와의 비교(특히 윗 세대)를 통해서 더욱 부각되었다. 이것은 세대가 필연적으로 타 세대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서 의미가 결집된다는 이론적 논의와 함께 설명되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하겠다. 세대사회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세대 ‘자체’가 아니라 세대 ‘들’(그것이 세대간이든, 세대내이든)의 관계맺음이다.

3) 경향신문은 2007년 12월 3일부터 〈88만원 세대를 구출하라〉는 연재를 13회에 걸쳐 게재한다. 패스트푸드 알바생, 보험판매원 등 20대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삶을 소개하는 이러한 연재물은 상황의 원인이 아니라 상황 자체만을 생생히 홍보하고 있을 뿐이다.

sphere)을 신뢰한다(김호기·고동현·김인정, 2008). 이것은 과연 '2008년 10대들'만의 독특한 특징일까?

지금의 20대가 10대였을 시절에 있었던 〈2000년도 두발 자유화 운동(2000년 5월-2000년 12월)〉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ON/OFF 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10대들의 두발자유화 운동은 10대들의 염원을 최초로 대중적인 차원까지 발전시킨 적극적인 저항 운동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웹 연대 'WITH'와 웹진 'IDOO'의 활약은 10대들이 인터넷 상에서 얼마나 조직적이고 민첩한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김동일·류지영, 2002). 당시 이 운동을 주도한 10대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 방식은 지금의 Web 2.0 세대와 같은 맥락에서 주목받았다(김동일·류지영, 2002; 김영지, 2000; 이창호·정의철, 2008). 그리고 2002년도에는 어떠했는가? 붉은악마의 월드컵응원과 특히 월드컵 이후, 미군 장갑차에 숨진 효순이·미선이 추모시위에 당시의 10대와 20대 초반이 적극 참여한 것에 대한 평가는 지금의 Web 2.0 세대에 대한 평가와 사실 동일한 것이다. 2002년의 그들 역시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표출을 했으며 사이버 공론장을 신뢰했다(김종길·김문조, 2006; 이명진, 2005: 6; 이창호·정의철, 2008). 2000년, 2002년, 2008년의 이들에게서 돈 탭스콧(Don Tapscott)가 말한 'N세대(Net generation)'(Tapscott, 1999)의 특징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 모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이창호·정의철, 2008: 481) P세대⁴⁾이다.

그렇다면 2008년 촛불의 현장에 있었던 10대들에게서만 Web 2.0 세대의 특징을 찾는 것은 어딘가 무리가 있지 않을까? 20대는 Web 2.0 세대가 아니라서 침묵했는가? 20대들은 정말로 촛불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사실, 촛불의 현장에 20대는 많았다. 다만 주목받는 10대들 때문에 그들이 상대적 조연으로 보였을 뿐이다(한겨레, 2008. 5. 19). 거리에서만이 아니라, 사이버공간 안에서도 20대의 활약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다. 그들 역시, 독특한 감각을 바탕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반짝이는 제안을 공유했다. 20대에게도 비판의식이 있었다. 20대 역시 쌍방향 소통을 중요시 했다. 이들도 역시 〈Web 2.0〉세대이다.⁵⁾

4) P세대는 제일기획이 2002년도에 발표한 세대명이다. 여기서 P는 참여(participation), 열정(passion), 잠재적 힘(potential power),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shifter)를 의미한다.

5) 이하에서 언급되는 Web 2.0 세대는 '20대'에 국한된다. 아울러 Web 2.0 세대가 단순히 촛불에

지금까지의 논의는 현재의 20대 안에 <정말로 무능한 88만원 세대>와 <10대처럼 적극적이고 활발한 Web 2.0 세대>가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자는 2008년의 촛불을 축으로 동년배 세대 '내'의 세대 '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동년배 세대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갈라져 있는가?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이 여기다. 기존의 세대연구는 이것에 대한 이유를 '각 세대만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에 익숙하다. 예를 들어 Web 2.0 세대는 '새로운 사이버문화의 소통방식'이라는 커다란 문화적 변동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88만원 세대는 '신자유주의 경제구조 속 세대간 착취'에 속수무책이라는 맥락에서 출현되었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그 경험의 다름 때문에 두 세대의 차이와 갈등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과거의 경험'만으로 세대형성의 인과성을 완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이 세대의 현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하는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경험에 대하여 반응하는 '감정'(emotion)이다. 경험은 감정이 있어야지만 '어떤 식으로든' 행위자에게 체화가 된다. 동일한 경험이라도 반응하는 감정에 따라 다른 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 아마도 사이버문화의 소통방식이 Web 2.0 세대의 결정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감정', 혹은 '두려워하지 않는 감정'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고, 신자유주의 경제구조가 88만원 세대의 결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에 '절망하는 감정'이 다수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감정은 행위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행위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다(Barbalet, 2007: 119).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위자가 단순히 사회문화적 구조에 놓여있다는 것만으로 구조에 '대한' 반응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세대는 바로 이러한 감정 '들'이 얹혀있는 것이다. 세대는 특정한 '집단감정'의 결과물이다. 2008년의 촛불은 특정한 집단감정이 구체적인 집단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연구자는 촛불을 매개로 설명할 수 있는 20대 동년배 집단 '내'에 주목한다. 이는 촛불에 적극 동참한 Web 2.0 세대와 그렇지 않은 88만원 세대다. 이 세대들은 특정한 경험에 반응하는 감정의 여러 유형들이다. 이 세대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경험이

대한 긍정적인 상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상진(2008)은 이 세대의 특성이 촛불을 지지하지 않는 그룹에서도 동일하게 발현됨에 주목한다. 촛불을 지지하는 집단만큼 촛불을 반대하는 <Web 2.0 세대>가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특성이 구현되는 메커니즘이다.

있었을까? II장은 이를 칼 만하임(Karl Mannheim)의 세대이론을 통해서 접근한다. 다음은 그 경험에 대한 집단의 감정형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감정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한 잭 바바렛(Jack M. Barbalet)의 논의를 통해 III장에서 살펴본다. IV장은 이러한 경험과 감정을 통해 촛불의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가설 몇 가지를 간략히 언급한다.

II. 동년배 세대 ‘내’의 이해 ① - 세대사회학적 접근

세대는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동일한 정체성이 체화된 집단, 즉 집단의 구성원끼리 ‘공통의 의미지평’(common horizon of meaning)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Eyerman and Turner, 1998; Giesen, 2004: 33-34). 세대연구는 이 의미지평을 공유하는 집단의 ‘연령’에 우선적으로 주목한다. 그래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동년배의 특성’이 가장 일반적인 세대 정의이다.⁶⁾ 그런데 이 동년배 세대 ‘내’를 살펴보는 것은 세대론에서 익숙하지 않다. 역으로, 세대 ‘간’ 차이를 주목하는 것은 익숙하다. 이는 세대의 화합과 통합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사회분위기 탓이 크다(황상민·김도환, 2004). 그러니 이를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세대간 차이가 더욱 부풀려진다(이명진, 2004: 16-17).

하지만 세대라는 개념은 명확한 사회적 실재의 차원에서 규명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여러 변수를 활용하여 세대를 세분화시켜도, 그 조건을 충족하는 누군가의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는 반문 하나면 세대의 오류는 입증된다(변희재·여원동, 2008: 42-43). 우석훈은 이를 세대연구가 피해갈 수 없는 ‘모든’과 ‘어떤’의 딜레마라고 표현한다(우석훈·박권일, 2007: 90-94). 아무리 명확한 세대개념을 사용하여도 그것은 그 세대변수에 속한 범위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6) 데이비드 켈처(David Kertzer)는 세대를 가족단위(kinship), 생애주기(life stage), 출생코호트(birth cohort), 역사적 단계(historical period) 등의 변수를 바탕으로 구분한다(Kertzer, 1983). 이러한 세대정의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세대를 ‘너무나’ 간략히 정의하는 것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코호트라는 변수가 주목받는 것을 강조할 뿐이다.

이처럼, 세대는 사회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단지 세대는 넓은 그물(net)안에 존재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사회분석의 도구일 뿐이다(Rosemann, 1995: 5-6). 그래서 세대연구는 세대자체를 명확하게 입증받기 위해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옳다. 어차피 완벽하지 않을 두 세대의 차이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맥락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학교급식과 직결되는 쇠고기 문제에 참여하는 10대 ‘일부’와 내일모레가 졸업인데 취업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촛불 앞에서 침묵한 20대 ‘일부’를 ‘모든’ 10대와 20대의 엄청난 세대차이라는 차원에서 굳이 비교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대 ‘내’의 세대들을 주목하는 것은 좀 색다르다. 그것은 ‘어떤’ 세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수(複數)형일수록 ‘모든’ 세대를 가장 근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풍부해진다. 물론 그것이 세대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아니겠지만, 모든과 어떤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연구가 Web 2.0 세대와 88만원 세대를 20대라는 동년배 맥락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세대 ‘내’를 보게 되면, 훨씬 정교한 사회분석의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20대를 설명하는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와 중세사회의 ‘다름’은 몇 가지 핵심특징으로 확연히 구별되지만 그 특징 몇 가지로 각각의 사회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특정한 사회를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보다 세분화된 단위까지 확인해야 한다. 동년배 ‘내’ 세대들을 확인하는 것은 복잡한 사회적 그물을 한결 의미 있게 풀어헤쳐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칼 만하임이 주장하는 세대형성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만하임은 세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① 세대위치 혹은 세대상대(generation location or generation status) → ② 세대맥락 혹은 실제세대(generation as actuality) → ③ 세대단위(generation unit)로 설명한다(Mannheim, 1997).⁷⁾ ① 세대위치는 특정한 집단이 숙명적으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최초의 상황을 말한다. 만하임은 전쟁(1차 세계대전)이라는 상황에 주목했다. ② 세대맥락(실제세대)은 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반응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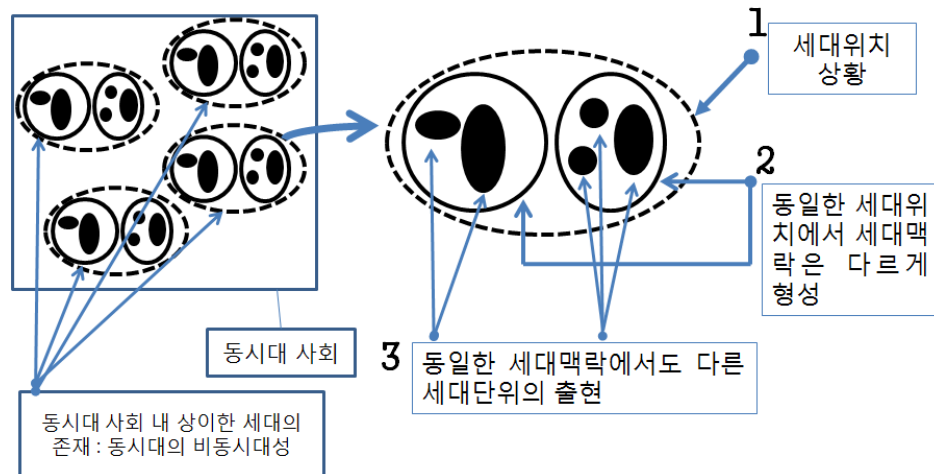
7) 만하임의 이러한 구분은 세대연구의 고전이자 단골메뉴이다. 또한 이 개념의 정확한 활용을 위해서 무엇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Esler, 1984; Kertzer, 1983; Pilcher, 1994; 박재홍, 2001; 2003; 전상진, 2002; 2004). 여기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함의를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연구자가 선행연구들의 노고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이론적 문제는 추후에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

특정한 스타일의 ‘집단화’가 실제로 형성되는 시점이다. 이것이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③ 세대단위이다.

주목할 지점은 세대위치가 세대단위가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만하임은 도시와 시골이라는 공간적 변수의 차이를 주목했다. 이 차이는 ‘경험의 성층화’(stratification of experience)를 다르게 유인한다. 청년들이 전쟁 후 겪게 되는 격동적인 사회문화적 변동이 공간적 변수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의미화 된다는 것이다. 즉, ‘전쟁 후 변화’라는 아주 넓은 의미의 경험은 공통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특정한 기억으로 축적되는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경험이 어떤 식으로 의미화 되느냐에 따라 세대단위의 특성은 결정된다. 그것은 같은 세대위치를 공유하겠지만 전혀 다른 세대단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한다.

세대는 동일한 세대위치에서 이에 반응하는 다양한 세대맥락을 거쳐 또 그 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표출하는 집단들 중 하나이다. [그림 1]의 좌측은 사회 안에 여러 세대가 공존함을 나타낸다. 독일의 예술사가 빌헬름 핀더(Wilhelm Pinder)는 이를 ‘동시대의 비동시대성’(the non-contemporaneity of the contemporaneous)이라고 하였다. 연대기적으로 동시대에 살지라도 주체의 주관적·내면적 시간은 비동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박재홍, 2005: 47). 우측에서 확인되는 세대단위는 총 5개다. 이것들의 세대위치는 동일하다. 이 동일한 세대위치는 2개의 세대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세대맥락 안에서도 다른 세대단위가 나타난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그 영향력을 다르게 표출한다. 어떤 세대는 그 의미가 강력히 표출되어 그 세대성이 뚜렷이 식별되는 강력한 세대이겠지만(ex. Web 2.0 세대), 어떤 세대는 존재는 하지만 그 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대일 수도 있다(ex. 88만원 세대).⁸⁾

8) 만하임의 논의를 엄밀히 따르게 된다면 위에서 제시하는 〈88만원 세대〉를 세대단위라고 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하임의 세대단위는 세대맥락에서 그것을 찬성하든 반성하든 분명한 목소리, 행동양식 등이 표출되는 구체적인 집단(concrete group)의 형태여야 한다(Mannheim, 1997: 45-47).



[그림 1] 세대출현의 이해

그렇다면 전혀 다른 세대단위의 특징을 가진 Web 2.0 세대와 88만원 세대는 어떠한 세대위치를 가지고 있을까? 공유점이 있을까? 아니면 애초부터 출발점이 달랐을까? 우선 Web 2.0 세대부터 살펴보자. 이미 확인했듯이, 단순히 연령(20대), 혹은 시기(2008년)로서 Web 2.0 세대의 세대위치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대위치를 무엇으로 추측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88만원 세대의 세대위치를 이해할 개연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T 문화의 시대적 도래를 세대위치로 설정한다면 88만원 세대는 그것에 '적응을 못해서, 혹은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촛불을 외면했다는 우스운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88만원 세대의 세대위치가 Web 2.0 세대를 설명할 수 있을까? 88만원 세대의 세대위치는 Web 2.0 세대의 그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다. 게다가 그 구조에서 행위자는 무척이나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세대 착취 현상이 구조화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회적 균형을 찾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열쇠를 지금 20대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지불능력과 상징적 자산을 갖추지 못한 지금의 20대들이 이 구조에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우석훈·박권일, 2007: 186).

우석훈의 이러한 절망적 진단은 현재의 20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구조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이 상황은 교육적 광풍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이미 예전부터의 현상이다. 다만 과거에는 ‘교육을 받는 동안에만’ 일시적인 유예(moratorium)를 선택했다면 지금은 ‘교육이 종료되어도’ 강제로 유예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사회구조적으로 20대의 사회진출은 과거에 비해 매우 지체되고 있다(우석훈·박권일, 2007: 86). 저자는 이 지체구조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음에 걱정을 내비친다. 원인으로서는 지금의 기이한 경제구조를 생산한 386 세대의 활약이 지금부터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런데 20대들은 이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고작 자기들끼리의 ‘베틀’을 통해 이 난관을 헤쳐 나가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우석훈·박권일, 2007: 187).

이 상황에서 자유로운 20대가 존재할까? 혹자는 청년창업에 성공한 사람, 대기업에 합격한 지방대학교 학생 등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88만원 세대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세대위치는 동일하다. 다만 세대내 베틀에서 승리한 ‘다른’ 세대단위일 뿐이다.⁹⁾ 88만원 세대의 ‘세대위치’는 사실상 20대 연령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걸 Web 2.0 세대처럼 문화를 ‘공유’하는 차원이 아니다. 경제적 ‘구조’의 착취이다. 웬만해서는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 그것을 신자유주의 게임의 법칙으로(공정적으로) 받아들이든 것은 행위자의 자유다. 그래서 열심히 세대 ‘내’ 승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그의 자유다. 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 구조자체의 ‘잠김’(lock-in)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은 분명하다(우석훈, 2008: 134).¹⁰⁾ 물론, 이러한 절망적인 세대위치로부터 Web 2.0 세대의 희망적 느낌을 찾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하지만 Web 2.0 세대가 최소한 20대라는 연령변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88만원 세대의 세대위치와 운명적으로 동일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20대들은 ‘동일한 세대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최종진단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문이 든다. 앞에서, 독특한

9) 최근 88만원 세대 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실크(로드)세대’는 청년창업을 주도하는 창의적 세대로서 20-30대를 조망한다(변희재·여원동, 2008). 이는 분명 88만원 세대의 절망적 담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실크세대 역시, 386 세대의 경제적 착취를(세대위치) ‘극복’하는 맥락에서 설명된다. 결국 동일한 세대위치에서의 ‘상이한’ 반응일 뿐이다.

10) “구조가 개인을 포박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심사평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본 연구가 강조하는 것은 구조 안의 개인의 존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이 순응이든 저항이든 간에 행위자는 필연적으로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이다.

Web 2.0 세대와 얼핏 연관되는 사이버문화라는 사회조건이 88만원 세대의 세대위치가 되는 것에는 명백한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88만원 세대를 설명하는 세대위치는 Web 2.0 세대의 세대위치와 관련을 있음을 말했다. 이는 문화적인 분위기(ethos)가 아니라 경제적 구조(structure)의 문제이기 때문에 20대라는 이유만으로도 여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조건에서 어떻게 Web 2.0 이라고 불리는 창의적인 세대가 등장할 수 있다 말인가? 이러한 의문은 세대단위를 이해하는 세대위치의 모습을 좀 더 다층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세대위치가 실질적인 세대의 모습으로 발전하기 것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세대위치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행위자가 구조적 조건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구조에 순응적으로 동화되는 것 역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행위자의 감정'이 결정적인 작동을 한다. 그렇다면 88만원 세대의 세대위치를 자기의사와 무관하게 공유하는 20대는 그들의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기쁨? 절망? 본 연구가 '감정'에 주목하여 세대를 바라보고자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III. 동년배 세대 '내'의 이해 ② - 감정변수를 통한 세대의 구분

일반적으로 감정은 개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심리현상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개인을 초월하는 사회적 집합체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학의 주된 주제는 아니었다(김경동, 1989: 1). 물론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이 사회적 연대를 집합적 감정이 승화되는 맥락에서 이해하고(Durkheim, 1992), 막스 베버(Max Weber)가 사회적 행위의 유형 가운데에 감정적 행위를 포함시킨 카리스마적 권위 유형을 다루는 것(Weber, 1966)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학에서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바바렛은 이러한 감정을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한다. 사회적 맥락으로 감정을 살펴본다는 것은 감정의 토대가 완전한 개별주체인 개인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분명한 사회관계 안에서 형성되었기에 이를 통해 사회적 행위, 사회구조와 사회과정을 충분

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arbalet, 2002: 138; 281).

감정은 사회의 구조적 관계로부터 발생하거나 그것 속에서 내재한다. (...) 감정은 행위의 토대가 되거나 행위를 유발한다. (...) 이러한 행위들은 현재의 결과를 강화하거나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감정은 사회적 존재론과 사회적 효력 모두를 가지는 것으로, 그리고 사회적 행위의 원천이 됨으로써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구조의 국면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Barbalet, 2007: 141).

감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관계 현상이며, 그 관계의 맥락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social construction)이다. 감정은 문화의 규범에 따라 모습지어지고 조직되고 생성되어 진다(김경동, 1989: 7-8). 사회적 구조와 얽혀있는 감정은 단순한 '느낌'(feeling)이 아니라 '느낌의 규칙들'(feeling rules)이다(Hochschild, 1975).

예를 들어,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대상에 대한 감정을 보자.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연쇄적으로 부녀자를 납치 후 살해했을 경우와 정부가 공권력을 통한 진압과정에서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어떠한 감정을 가질까? 이것은 '분노'라는 동일한 감정일까? 아니면 '개인의 분노'라는 제각기 다른 감정일까? 여기에는 감정의 형태와 그 수위가 사실상 사회적으로 조절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피의자를 향한 극도의 감정표출이 사회적으로 허락되면서 '분노'로서의 모든 감정이 사실상 허락된다. 반면 피의자와 피해자 규정이 애매한 후자의 상황에서 개인들은 분노를 표출하는 수위를 조절하며, 또한 분노를 정치적 차원에서 활용하기까지 한다. 이처럼, 흥분하는 '개인의' 감정도도 엄연한 '사회적' 규칙이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실업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살펴보자. "A가 실직을 했다. A는 앞으로 살아갈 걱정과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 여기서 공포라는 감정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A의 이 감정은 실직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실직 바로 '그 순간의 개인의 감정'일까? 노동자들은 언제나 자신이 실업상태가 되면 발생할 미래의 일들을 두려워한다. 이는 이미 실직한 타인을 통해 실업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정상적인 노동생활 중에도 실직이 '공포'라는 감정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Blackburn and Mann, 1979; Mills, 1956; Reddy, 1987).

바바렛은 이러한 공포를 사회적 공포라고 한다.

실업의 공포는 (...) 그것이 또한 하나의 사회적 집합체 - 이른바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고용된 사람들 - 의 성원들에 의해 경험되고 공유되는 공포라는 의미에서 (...) 수많은 개인들이 실업이라는 유사한 공포를 느끼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실업이라는 공통의 공포에 의해 하나의 집합체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의 공포는 사회적 공포이다(Barbalet, 2007: 264-265).

‘실업의 공포’는 막연한 무서움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관계망 안에서의 ‘가시적인 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기에 발생하는 공포다. 실업상태는 경제적 활동을 ‘객관적으로’ 위축시키고 부양가족들의 생활을 ‘객관적으로’ 위태롭게 한다. 이러한 감정적 분위기는 그것의 속성과 상관없이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집합행위의 원천으로 작동된다(Barbalet, 2007: 143; 266; 279-289). 물론, 바바렛의 강조점이 ‘실업의 공포스러움’을 알리는 것에 있지 않다. 바바렛이 감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회적 맥락에 얽혀있는 그 감정이 특정한 ‘행위’를 야기하기 때문이다(Barbalet, 2007: 119; 249). 그리고 이 행위는 ‘다르게’ 작동된다.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개인들의 참여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그러므로 똑같지 않다는 것이다. (...) 집단은 역할, 능력, 권력 등의 차이에 기반해 구조화된다. (...) 감정적 분위기는 그와 관련된 집단성원 모두를 똑같이 덮는 담요가 아니다. 각각의 성원은 분위기에 따라 각기 달리 기여하고, 집단 속에서 차지하는 각자의 특별한 위치에 따라 그것을 다르게 경험한다(Barbalet, 2007: 266-267).

감정에 대한 ‘다른’ 행동은 행위자가 그 감정의 원인을 어디에 귀인(attribution)시키느냐에 따라서 상이해진다.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Fritz Heider)에 따르면 행위자는 특정한 귀인을 내적 요소(개인의 능력)에 결부시키느냐, 아니면 외적요소(운명적인 상황)에 의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Heider, 1959). 사회학자 테오도르 켐퍼(Theodore Kemper)는 여러 감정 중에서도 ‘공포’에 대한 행위자의 귀인에 주목했다. 행위자가 공포가 발생한 상황을 외부의 잘못이라고 이해하면, 책임을 추구할 타자가 뚜렷하게 형성되고 이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반대로 그 원인을

주체 스스로에게서부터 찾는다면, 그 공포는 '미약한 자신'이 극복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인지된다. 켐퍼는 이를 '반란'과 '예속'으로 구분한다(Kemper, 1978).

반란은 공포의 원인을 외사(外射)적 차원에서 이해한다. 386 세대가 '뚜렷한 저항의 세대'로서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민주화가 지체되면서 나타나는 반민주적 공포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단연코 군사정권이라는 외부적 실체에 묻기 때문이다. 반면, 예속은 공포에 대한 책임을 내사(內射)한다. 공포의 원인을 '자신의 문제'에서 찾는다. 88만원 세대가 '절망의 대명사'로 부각 받는 이유는 현재의 20대들이 경제구조의 세대간 착취현상을 세대 '내' 승자가 되어 '자신만은' 선택받길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포의 원인을 아직은 그것을 극복하기에 부족한 '나'로부터 찾는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발전시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세대론에 결부시켜 보자. 독일의 사회학자 베른하르트 기젠(Bernhard Giesen)은 세대가 출현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으로 특정한 경험(divided memory)이 '의미적 시간'(semantic time)으로 행위자들에게 인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Giesen, 2004). 단순한 기억만으로는, 그리고 그것을 '단지'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세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86 세대에게 '의미적 기억'은 80년대 대학문화가 민주화를 열망하는 맥락으로 행위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감정이 절대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80년대 대학문화에 대해서 '자부심', '책임감', '희열', '숭고심' 등의 감정을 보유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감정은 의미를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인 선행조건이다. 그리고 이 감정은 그 상태가 어떠한 간에 필연적으로 사회적 맥락에 의존한다. 80년대 대학문화에 대한 감정의 긍정적인 반응은 그것이 바로 '엘리트 지식인의 참된 도리'라는 암묵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오찬호, 2009).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 지식인으로서 권력에 대항한다는 희열 등은 분명한 '나의 감정'(my feeling)이겠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된 '집단의 감정'(we-feeling)인 것이다.¹¹⁾

앞서 88만원 세대와 Web 2.0 세대는 동일한 세대위치를 공유하는 20대 집단임을 확인했다. 그 세대위치는 행위자가 쉽사리 거부할 수 없는 경제적 착취구조를 말한

11) 감정에 대한 'my feeling', 'we feeling' 개념은 쿨리(Cooley, 1964)에서 인용.

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세대위치를 ‘온전히’ 설명할 순 없다. 사회구조 안에 존재하는 행위자의 ‘감정’을 살펴야 한다. 아울러 그 감정이 사회구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20대는 작금의 상황에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그리고 그들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30대 초반의 이 땅의 젊은이들은, 아버지들이 줄줄이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세대이다. 평범한 회사원이 되는 대신 자신의 꿈을 좇는 것을 이상으로 알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 모든 토대가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만 것이다. (...) 이들에게 경제는 그 무엇보다 ‘공포’로 다가왔다. 선배들은 졸업도 하기 전에 전부 취직했지만, 후배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다(노정태,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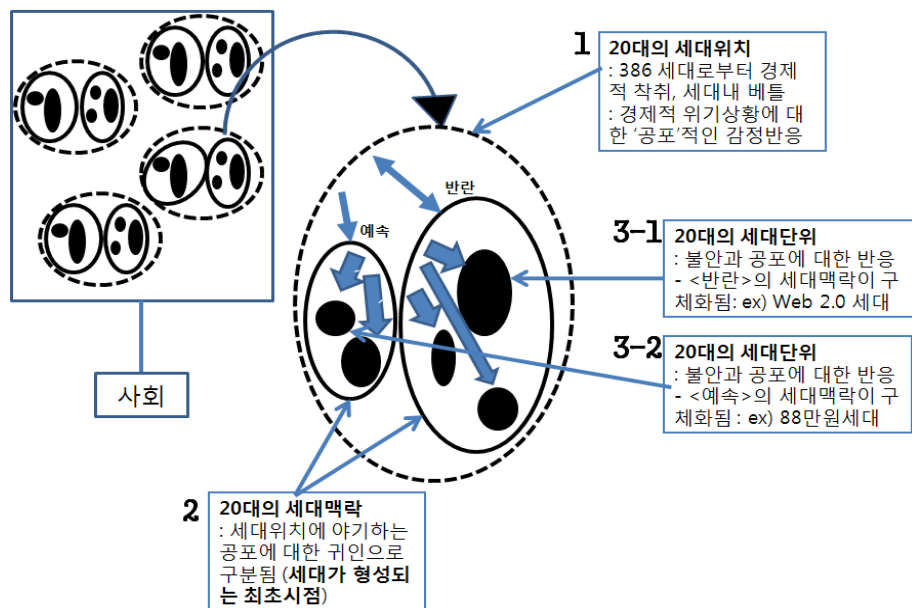
노정태는 지금의 20대들이 현재의 경제구조적 상황을 ‘공포’라는 감정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사회적 맥락에서 잘 짚어준다. 그들은 ‘이전의’ 경제적 공포를 이미 체험했다. 현재의 상황은 그들에게 이미 학습된 ‘사회적 공포’의 감정을 야기한다. 이 공포는 현재가 불안한 공포이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공포다. 게다가 이 공포는 사회적 차원에서 야기되었기에 그 근원으로부터 쉽게 달아나는 것도 힘들다(Barbalet, 2007: 255).

20대 동년배 세대 ‘내’에서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지점은 이러한 공포에 대한 상이한 반응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세대단위는 세대적 결속(generation bond)이 ‘진화’된 상태이다. 세대위치를 ‘구조와 감정의 얽힘’으로 이해한다면 세대맥락은 그것의 반응이 시작되는 지점이며 세대단위는 그 반응이 구체화되는 단계이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챔퍼를 다시 주목하자. 20대는 공포의 원인, 즉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귀인 시킬까? 내사(內射)의 차원에서 자신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외사(外射)적 차원에서 타인에게 적대감을 표출할 것인가? 이 귀인에 따라 구체화된 행위자들(crystallizing agents)끼리의 연대는 본격화된다. 단, 이 세대단위들의 성격은 판이하다.

[그림 2]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한다. 20대 동년배 집단은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에서 발생하는 세대간 착취의 모순적 현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그들은 이 현실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상황에 대한 공포적인 감정이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이 동년배 ‘내’에는 공포의 원인에 철저히 외사하여, 그것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들은 공포의 원인을 철저히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찾는다. 그

들은 세대위치의 절망적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그들만의 세대 스타일을 ‘주도적으로’(leading) 활용한다. 2008년의 촛불은 그들의 감정이 폭발한 현상이었다.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위기상황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부족한 자신’에 게 찾는 경우다. 이들과처럼 공포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을 경우, 행위자들은 ‘공포를 야기한 구조’에 더욱 예측된다. 이들은 경제적 구조로부터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기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다.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일분일초를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것이다. 그들은 ‘같이’ 살아남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살아야 할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서 기존의 구조에 더욱 억압된다(suppressed). 여기에서 전자는 <Web 2.0 세대>, 후자는 <88만원 세대>로 부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촛불의 현장’에서 간략하게 확인한다.



[그림 2] 20대 세대 '내'의 다른 세대'들'에 대한 이해

IV. 2008년의 촛불과 동년배 세대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가설¹²⁾

2008년도의 촛불시위는 20대 동년배 ‘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지점이다. 촛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20대도 많았으며 적극적으로 촛불을 외면한 20대도 많았다. 하지만 사실상 후자의 논의가 더욱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촛불을 적극적으로 든 10대에 대한 칭찬, 즉 10대 ‘땀’이 촛불의 중심에 있었다는 식의 논의가 I 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너무나’ 과잉되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가 정치적 행동을 보여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10대들이 촛불시위 초기의 ‘실제로’ 등장했다는 점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10대들에 대한 ‘과도한 칭찬’의 이면에는 386 세대의 비판정신이 그들 자녀 세대에게 ‘전수’되었다는(경향닷컴 촛불팀, 2008: 36; 민경배, 2008) 식의 낭만적 분석경향이 존재함을 무시할 수 없다. 즉, 386 세대가 민주적인 이념을 ‘적극적으로 전수한다는 것’이 강조되기 위해서 10대들의 정치적 참여를 지나치게 과잉해석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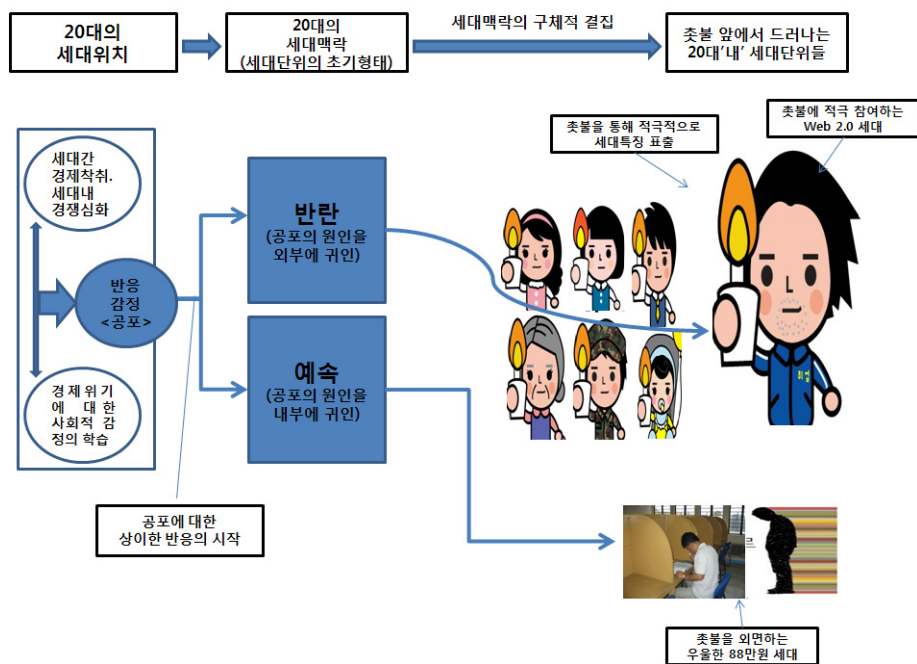
촛불의 현장에서 20대는 ‘10대처럼’ 활발했다. 다만 20대들은 10대처럼 교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30-40대처럼 넥타이를 매거나, 혹은 유모차를 동반하지도 않았다. 기껏 예비군 복장이 그들을 상징하는 유일한 단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그들보다 타 세대들이 단지 ‘잘’ 보였을 뿐이다.

실제로 20대들이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7,80년대의 저항운동과 달리 ‘대학’의 이름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20대들은 정치적 담론을 나누고 이를 공유할 공동체로 대학이 아니라 ‘아고라’, ‘소울드레스’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선택했다(은하, 2008).

12) 이 장에서는 경험연구의 엄격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추후과제는 이러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서 언급된 공포가 ‘경제적 위기상황’이라는 사회적 공포인지를, 그리고 그 공포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어떤 모습인지를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 등으로 정교하게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점이 결여된 이 연구의 문제를 심히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그러한 경험연구에 들어가기 위한 사회학적 상상력(sociological imagination)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다.

과거 시위에서처럼 수백 개의 학교 깃발아래서 오와 열을 맞추지 않았을 뿐이지, 촛불의 현장에 (대학생이든 아니든) 20대는 많았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지극히 개인적 관심사로 구성된 특정 커뮤니티가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20대를 충분히 Web 2.0 세대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1장에서 언급된 Web 2.0 세대의 화려한 특징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결코 ‘패션’(souldresser), ‘야구’(MLB park) 동호회가 그 현장에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들의 반응을 ‘공포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의 차원에서 이해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공포의 원인을 외부에 귀인 시키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3]처럼, 20대 Web 2.0 세대의 출발점을 20대가 처한 현재의 ‘경제적 위기 상황’부터 설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림 3] 촛불과 동년배 세대‘들’

그렇다면 촛불에 참여하지 않은 20대들의 맥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다음은 〈한겨레 신문〉 2008년 5월 19일자에 소개된 20대들의 주장이다.

“집회에 갈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다. 취업이 우선이라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불황기에 취업문이 좁아지다 보니 모든 신경이 취업에 쏠려 있다. 관심은 있지만 집회 나갈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
“사실 집회 나가는 게 이력서에 써넣을 수 있는 경력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거기도 나가도 변하는 게 없잖아.”

다음은 인터넷 매체 〈레디앙〉에 2008년 5월 23일자에 소개된 20대의 생각이다.

1년 등록금이 천만 원이 되고 어학연수에 취업준비를 하다보면 졸업할 때는 부모님이 거의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저회한테 투자하십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면 취직을 잘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뒤 죽는 것보다 당장 취업을 못해 죽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20대에게 가장 두려운 현실은 ‘취업을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현실에 20대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든 20대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현상과 감정이라고 앞서 언급했다. 다만 이들은 여기에 다르게 반응한다. 그 공포를 ‘극복’할 메커니즘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 〈halohs〉라는 아이디를 가진 자는 20대를 다음과 같이 소묘한다.¹³⁾

20대 중반을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기도 합니다. (...)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 해봐도 도통 정부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죠. 당장 현실 문제인 일에 집착하거나 취업에 집착합니다. 촛불집회엔 참여가 아니라 먼발치에서 누군가 하겠지라는 의식이 많지요. 뭘 해도 나한테 무슨 영향이 미치겠나, 나만 잘 하면 되지라는 말을 내뱉기도 하죠. 나 하나로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다는 사실, 내 앞에 돈 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군요.

13) http://cafe.naver.com/netmar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999, 2009년 2월 11일 인출.

이 20대가 바로 <88만원 세대>일 것이다. [그림 3]에서처럼 그들의 행위는 ‘공포에 대한 예측적인 반응’이다. 그들은 조용하며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들은 20대 Web 2.0 세대와 동일한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다. 물론 다음의 가설은 그들이 그 공포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인 규칙을 ‘스스로’ 잘 따르지 못했기에 이러한 공포에 직면했다고 느낄 것이다.

이 메커니즘으로 동년배 ‘내’ 세대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했던 것이 본 연구의 주제였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판단된다. ‘감정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이를 세대연구에 ‘고의적으로’ 활용할수록 세대에 강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기존의 접근법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활용할수록, 그리고 이를 통해 세대를 ‘더’ 분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수록 세대연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사회현상의 이해’라는 것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음을 던지고자 했을 뿐이다.

참 고 문 헌

- 강준만(2008). '스펙터클'로서의 촛불시위 - '공간의 정치학'과 '시각의 정치학'. 인물과 사상, 2008년 8월호, pp. 46-59.
- 경향닷컴 촛불팀(2008). 촛불, 그 65일의 기록. 서울: 경향신문사.
- 김경동(1989). 감정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제22호, pp. 1-21.
- 김경환(2008). 20대, 그들은 무슨 생각하나? - 불안한 미래 속에서 무한경쟁 20대는 IMF 세대. 월간 말, 2007년 5월호, pp. 102-107.
- 김동일·류지영(2002). 학교규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저항운동. 청소년학연구, 제9집 제2호, pp. 233-254.
- 김영지(2000). 청소년웹진 활용의 실태와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종길·김문조(2006). 디지털 한국사회의 이해. 서울: 집문당.
- 김종엽(2008). 촛불항쟁과 87년 체제. 창작과비평, 제141호, pp. 36-59.
- 김진석(2007). 촛불시위, 조금 빼딱하면서도 훌륭한 저항. 황해문화, 제60호, pp. 282-303.
- 김철규·김선엽·이철(2008).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여 10대의 사회적 특성. 경제와 사회, 제80호, pp. 40-67.
- 김호기(2008). 촛불집회의 정치적·사회적 의미.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촛불 토론회 자료집(2008. 6. 7).
- 김호기(2009). 촛불집회와 새로운 시민문화의 가능성. 대한민국은 도덕적인가 - 한국 사회 도덕 살리기 프로젝트. 김미숙 편. pp. 226-245. 서울: 동아시아.
- 김호기·고동현·김인정(2008). Web 2.0 세대의 사회학: 시민사회와 정보사회의 시각. 2008 후기사회학대회 -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사회학: 또 다른 사회학을 향하여. 자료집.
- 노정태(2008). 겁먹은 20대와 '쇼크 독트린.'
http://news.khan.co.kr/k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8061754135&code=990000(2009. 2. 9).
- 민경배(2008). 휴대폰과 촛불의 386 주니어.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052002012369697006(2009. 2. 1).
- 박권일(2008). 20대 왕따시켜 10대 찬양하는 '돌림병'이 돈다. 시사IN, 제37호(2008년 5월).
- 박재홍(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연구학, 제24집 제2호, pp. 47-78.

- 박재홍(2003). 세대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제37집 제3호, pp. 1-23.
- 박재홍(2005). 한국의 세대문제. 파주: 나남.
- 백옥인(2008). 촛불시위와 대중. 동향과 전망, 제74호, pp. 159-188.
- 변희재 · 여원동(2008). 코리아 실크세대 혁명서. 서울: 생각나눔.
- 오찬호(2009). 소외된 세대의 복원: 386 세대는 하나의 세대인가? 기고예정.
- 우석훈(2008). 왜 88만원 세대는 저항하지 않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제21호, pp. 133-140.
- 우석훈 · 박권일(2007). 88만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서울: 레디앙.
- 윤평중(2008). 사실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본 촛불. 철학과 현실, 제79호, pp. 57-67.
- 은하(2008). 촛불 이후의 대학생을 말하다.
<http://kixzero.egloos.com/4011670>(2009년 2월 8일).
- 이동연(2008). 촛불집회와 스타일의 정치. 문화과학, 제55호, pp. 150-167.
- 이명진(2005). 한국 2030 신세대의 의식과 사회정체성.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창호 · 정의철(2008). 촛불문화제에 나타난 청소년의 사회참여 특성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8집 3호, pp. 457-497.
- 이해진(2008). 촛불집회 10대 참여자들의 참여 경험과 주체 형성. 경제와 사회, 제80호, pp. 68-108.
- 전상진(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세대개념의 분석적 구분. 한국인구학, 제25권 제2호, pp. 193-230.
- 전상진(2004). 세대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 사회학, 제38집 제5호, pp. 31-52.
- 전상진(2008). 우울증, 자기계발, 민주주의: ‘촛불소녀’와 ‘무기력한 20대’에 대한 세대 사회학적 소묘. 한국정치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 - 촛불집회와 한국사회: 과제와 전망, 자료집, pp. 1-15.
- 전효관(2008). 촛불시위의 세대 특성과 그 문화적 함의. 황해문화, 제60호, pp. 262-281.
- 조기숙 · 박혜윤(2008).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 2008촛불집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pp. 243-268.
-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 한겨레 사진부(2008).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08 촛불의 기록. 서울: 한겨레.

- 한홍구(2008). 현대 한국의 저항운동과 촛불. *창작과비평*, 제36집 제3호, pp. 12-35.
- 허우성(2008). 촛불시위와 주체성의 문제. *철학과 현실*, 제79호, pp. 80-94.
- 황상민 · 김도환(200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세대 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8집 제2호, pp. 37-47.
- 홍성태(2008).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경제와 사회*, 제80호, pp. 10-39.
- Barbalet, J. M.(2007). *감정의 거시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박형신 옮김. 서울: 일신사.
- Cooley, C. H.(1964).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hocken Books.
- Durkheim, E.(1992).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 외 역. 서울: 민영사.
- Esler, A.(1984). The truest community!: Social generation as collective mentalities,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Vol. 12, pp. 99-112.
- Eyerman, R. and Turner, B. S.(1988). Outlines of a theory of gener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No. 1, pp. 91-106.
- Giesen, B.(2004). Noncontemporaneity, asynchronicity and divided memories." *Time & Society*, Vol. 13 No. 1, pp. 27-40.
-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 Hochschild, A. R.(1975). The sociology of feeling and emotion. In Marcia Millman and Kanter Rosabeth Moss(Eds.), *Another voice: Feminist perspectives on social life and social science*. New York: Anchor Press.
- Kemper, T. D.(1978). *A social interactional theory of emotions*. New York: John Wiley.
- Kertzer, D. I.(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merican Review of Sociology*. Vol. 9, pp. 125-149.
- Mannheim, K.(1997). The Problem of generation. In Melissa A. Hardy(Ed.), *Studying aging and social chang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pp. 22-65).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Mills, C. W.(1956). *White collar: The american middle cla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ilcher, J.(1994). Mannheim's sociology of generation: An undervalued legac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5 No. 3, pp. 481-495.
- Reddy, W. M.(1987). *Money and liberty in modern europe: A critique of historical understa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mann, M.(1995). Introduction: generation conflict and German history 1770-1968. In Mark Rosemann(Ed.), *Generation in conflict - Youth revolt and generation formation in germany 1770-1968* (pp. 1-46),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pscott, D.(1999).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허운나 외 옮김. 서울: 물푸레.
- Weber, M.(1966).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New York: Free.
- 레디앙. 2008. 5. 22일자 인터넷 기사 : 형님들, 토익책 덮고 풋볼 좀 들어요.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dxno=9834>.
- 레디앙 2008. 5. 23일자 인터넷 기사 : 짱돌 토크, '20대' 논쟁으로 뜨겁게 확산.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dxno=9853>
- 한겨레신문. 2005. 5. 19일자. 인터넷 기사 : 그 많던 20대 '광장세대'는 어디로 갔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general/288356.html>.
- http://cafe.naver.com/netmar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999,
2009년 2월 11일 검색.

ABSTRACT

The Different Reactions of a Generation of People of the Same Age Regarding Fear : A Few Hypotheses for Understanding the People in their 20s Who Partook in the 2008 Candlelight Vigil

Oh, Chan-Ho*

“Within” the generation of people in their 20s who are about the same age in South Korea, 〈depressed 880 thousand won generation〉 and 〈lively web 2.0 generation〉 coexist. This thesis confirms this based on the 2008 candlelight vigil. “How” and “why” are these people about the same age divided? Regarding the answer to this question, previous research on generations focused on showing the difference through any “special experiences unique to each generation”. However, in this thesis, the condition that a generation is formed by “past experiences” alone is not determined, because in order for past experiences to lead to the gathering together of generations, emotions that react to these experiences must be present. Even if it's the same experience, depending on the emotional reaction, the “follow-up” behavior (action) changes. A generation is the result of a particular “group emotion” in which such emotions are involved and present. The candlelight vigil of 2008 was a particular group emotion acted out as a concrete group behavior. This thesis has set this as an axis, with the aim of discovering whether the generations are relatively “different”.

Key Words : candlelight vigil, generation, emotion, fear, Karl Mannheim,
Jack M. Barbalet

투고일 : 3월 15일, 심사일 : 4월 20일, 심사완료일 : 5월 11일

* So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